

2. 마지막 일들 - 4.

자살 (自殺:SUICIDE)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엡 5:29-30)

* * *

1. 죽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과 자살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누구나 한 두 번쯤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허무함을 알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솔로몬이 해 아래 현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한 진솔은 모든 인생의 진솔한 마음일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전 2:17). 누군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이 사치스러운 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무상함 때문이기보다 견딜 수 없는 인생의 괴로움 때문이다(전 4:1-3). 독재 권력 아래서 학대를 받거나 굶주림에 내몰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다. 빈부를 막론하고 사람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고민한다는 것이 얼마나 일반적인 냉혹한 현실이길래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고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싶다.

전 4:1-3 _____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울에 빠져 죽기를 바랬다는 사실이다. 엘리야가 대표적이다. 그는 하나님을 배역한 아합 왕, 그를 따르는 백성들, 그리고 그 정권의 지원을 받는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여호와 신앙을 외쳤다. 하나님은 갈멜 산 대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셨고, 엘리야의 손에 칼을 쥐어 주셔서 사백 오십 인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게 하셨다. 그랬던 그가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든다는 소식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광야 깊숙한 곳으로 피신했고, 거기서 하나님께 죽고 싶으니 자기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애원했다(왕상 19:3-4).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한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 저주하며 싸우자고 덤벼들자 엄청난 압박감에 왜 하나님이 자기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생과 슬픔을 보게 하시냐고 한탄을 쏟아냈다(렘 20:14-18). 요나 선지자는 한 술 더 뜬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로 행동하다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배속에 갇혀 죽었다가 살아났다. 마지못해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했지만, 내심으로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자 그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을 쏟아내며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했다(욥 4:1-3). 욥은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슬픔과 고통 속에 그도 예레미야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했고,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말하면서 ‘살기에 곤비하다’고 불평을 토로했다(욥 3:1-4; 10:1). 그런데 이 네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 심지어 죽고 싶은 생각까지도 여과 없이 쏟아냈지만 모두 경청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요나의 경우는 기록이 없지만) 회복되어 하나님이 살게 하신 수한을 마치고 열조에게 돌아갔다.

욥 10:1 _____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모양상’ 자살한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삼손이고 다른 하나는 사울 왕이다.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정을 했지만, 삼손의 경우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믿음의 조상 중 한 명으로 소개했고(히 11:32), 사울의 경우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애도할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두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칭송했다(삼하 1:19). 삼손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 즉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명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식으로 완수한 것이었다(삿 14:4). 사울의 죽음은 전쟁터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가 멀쩡한 중에 전쟁이 두려워서 자결을 시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적군에게 치명상을 입었고, 죽어가는 중에 이방인들의 손에 모욕을 받아 죽는 길을 피하려고 자결한 것이었다(삼상 31:4).

그런데 자살은 위의 모든 경우들과 전혀 다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자살의 경우들을 보면 그 원인이 죄책감이거나 자기 의를 입증하는 것이거나 또는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체념이다. 이 세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죄책감의 대표적인 예는 가룟 유다이다. 그의 경우는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체념으로도 볼 수 있다(마 27:4-5; 행 1:18-19). 자기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또는 자기 뜻이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로 자살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윗 시대 최고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이다(삼하 17:23). 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모략을 따라 행동하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목매어 죽었다. 북이스라엘에서 왕을 모반하고 왕위를 찬탈한 군대지휘관 시므리의 경우도 좌절로 인한 자살이다. 그는 성읍이 에워싸여 점령당하자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을 알고 왕궁에 불을 질러 자살했다. 특별히 성경은 그가 자살한 것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왕상 16:18-19). 자살이 죄와 결부되어 있고, 자기 뜻을 끝내 관철시키지 못한 절망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을 하나님께 가져와 해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들의 죽음은 모두 죄나 자기 생각을 믿는 교만과 연관되어 있다.

시 90:8-9 _____

Q. 죽기를 바란 적이 있었는가? 죽음을 떨쳐 버리고 계속 살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나?

욥 7:15-16 _____

* * *

2. 자살은 생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 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창 2:7).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고 경고하셨다. 사람이 선악을 알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이고,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자살행위였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죽는 길을 택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여 생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손에 거머쥐었다. 그러나 사람은 당장 죽지 않았고, 흠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난 후 세월이 걸려 죽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사의 주권을 찬탈했어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주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준다(욥 1:21).

욥 1:21 _____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은 죽은 자의 몸에서 죽은 자가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밖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사든 자살이든 ‘죽음’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죄목’에 있어서 자살은 처음 사람인 아담의 죄를 반복하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하여 죽음의 권세를 자기 손에 쥐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죄’를 범하고 죽는 것이다.

죽음 후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들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들도 부활하여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불못, 곧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요 5:29; 히 9:27; 계 20:13-15).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즉 불못에 던져질 자들은 악행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행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목은 두려워함, 믿지 아니함, 흉악함, 살인, 음행(=간음, 탐색, 남색), 점술, 우상숭배, 탐욕, 술취함, 거짓말, 도둑질(=속여 빼앗음), 모욕이다(고전 6:9-10; 계 21:8). 이 가운데 자살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죄목은 도둑질과 살인에 더하여 우상 숭배를 능가하는 ‘스스로 하나님 된 것’이다.

Q. 영원한 심판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고전 6:9-11 _____

* * *

3. 자신의 육체의 의미를 아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마 22:36-40).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웃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누구도 자신의 육체가 가진 의미를 모르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으로 삼아 사람의 육체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 개개인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 성도들은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와 너’가 개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는 ‘몸의 지체들’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은 교회가 자신의 몸이기에 교회를 위해 모든 사랑을 쏟으셨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이웃이요 친구인 우리를 향해 사랑을 쏟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원리에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엡 5:28)고 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달은 성도는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이웃의 육체도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엡 5:29).

Q.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자살 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가?

엡 5:29-30 _____

* *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의미도 모른 채 개개인의 꿈과 욕망을 좇아 살았던 저희들인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인 것을 압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웃의 몸도 우리의 몸처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